

#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

소진희 교수 (Ph. D. 기독교교육전공) /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 I. 서론

## II.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 III. 자녀교육의 원리

### 1. 구분

- (1) 신분구분
- (2) 행동구분
- (3) 문화구분

### 2. 순종

### 3. 사소한 것

### 4. 징계

- (1)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 (2) 성실한 징계
- (3)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는 징계

## I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에 대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실천적 연구이다.<sup>1)</sup> 한국인이 지닌 자녀교육의 열의에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소명으로 더해져 기독교인들의 자녀교육의 열의는 시너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세대를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열은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너지가 가진 문제는 고지론과 교육적 소명의 교묘한 결탁에 있다. 일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세상적인 성공, 혹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기독교인 부모들은 이러한 교묘한 결탁을 간파하지 못하고 ‘세상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잘못된 공식에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비록 비기독교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에 기독교적인 것을 덧붙여서 기독교적 가치인양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의 핵심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의 교육이 구약성경에 기

---

1)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독자를 기독교인 부모를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학술적 성격보다는 실천적 요소이며, 연구논문 형식보다는 강의안 형식임을 밝힌다.

초하고 있다고 해도 성경적인 자녀교육일 수 없다 하겠다. 성경적인 자녀교육이 아닌 유대인의 자녀교육인 셈이다. 어쩌면 유대인의 교육이 기독교인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교육의 한 방법으로 회자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게 때문일지도 모르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 또한 고지론과 교육적 소명의 교묘한 결탁이 아닐 수 없다.

부모로서 자녀교육의 책임을 소명으로 받은 이유는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녀교육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다. 부연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자녀교육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녀양육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대한민국의 시민의 대립이 아닌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성경적 자녀교육은 신앙적 행동(예배, 성경읽기, 기도, 헌금 등)을 내면화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 신앙적 행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그곳이 어디이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교육이라는 교육적 소명을 지닌 기독교인 부모들이 성경에 기초한 자녀교육의 원리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에 기초해 논의한 후, 자녀교육의 원리로 구분, 순종, 사소한 것, 징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근거는 성경구절에 둘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목적 선정이며, 그 목적에 따라 방법은 학습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행적 경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아주 다양해야 한다. 자녀교육도 동일하다 하겠다.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들의 공통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이다. 그러나 선행해야 할 질문은 '왜 해야 하는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리에 근거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공부하는 목적,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 이전에 필요한 교육 원리에 대한 연구이므로 제시하는 원리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내용은 차후 연구로 남겨둔다.

## II.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시민 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시민 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원리이다. 시민 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라’, 또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나라 또는 국가라 할 수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다.<sup>2)</sup>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주권, 통치권의 개념인 것을 볼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원리에 입각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간이 만든 국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조리가 난무하고 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부모로서 자녀교육의 소명을 수행할 때도 예외일 수 없다. 자녀교육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이론, 다른 원리에 입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일명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녀교육의 출발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 혹은 한국적 상황과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야기한다.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낮아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 경쟁의 상대, 성공의 개념, 공부하는 목적, 나아가 삶의 목적까지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의 괴리는 성경적 원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적 원리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란격석(以卵擊石)’<sup>3)</sup>에 비유하며 합리화할 때도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의 간극은 다른 통치권에 의한, 다른 방향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통치권에 의한 다른 방향’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이며,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외현적으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녀교육이 현실 삶과 괴리가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부합하는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했듯이 말이다.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 헌신이 요구되지만 짧은 시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도로무공(徒勞無功)처럼 보이거나 손해본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유익이 없더라도

---

2)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였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시민이 살고 있었지만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표현한다.

3)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뜻. 그러나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달걀에, 세상을 바위에 비유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독교적 진리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쉽게 깨어지는 달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진리가 바위인 기독교의 진리를 만났을 때 깨어져야 하는 달걀이라 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 III. 자녀교육의 원리

성경에 기초한 자녀교육의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자는 기초적인 원리라 가정하고,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분, 순종, 사소한 것, 그리고 징계이다. 구분과 순종이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사소한 것과 징계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 1. 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성경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다.<sup>4)</sup>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의 연속선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며 복음이라는 독특성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이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 때로는 법과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그의 것이며,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피조물의 뜻이 아닌),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거나 어떤 누구의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창조주가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구분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다. 창조된 자신과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의식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단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한다. 인간의 위치와 존재 이유,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존재방식 등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인적으로 인정하게 한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시작은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분이 없는 교육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부터 실패를 초래하고, 자신의 존재방식의 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분을 교육에 적용하여 ‘신분구분’과 ‘행동구분’으로 나눌 수 있고 현대에서는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문화구분’도 포함한다. 신분구분과 행동구분은 전혀 다른 구분이라기보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신분구분에 따른 행동구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4)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1) 신분구분

신분구분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신분구분의 중요성은 신분에 맞는 행동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구분의 시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창조주인지 인간인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런 구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되어야 한다. 자신이 부모인지 자녀인지, 교사인지 학생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대학생인지 직장인인지, 결혼한 사람인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지, 총각인지 남편인지, 아가씨인지 아내인지, 연인인지 부부인지, 딸인지 며느리인지, 아들인지 사위인지,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목회자인지 성도인지, 기독교인인지 타종교인인지... 이러한 신분구분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신분에 적용된다.

신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아마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 즉 자녀이며 학생이며 청소년임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신분구분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 이상이라는 것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지만, 자녀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신분이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신분이다. 자녀의 학교나 교회에서는 교수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교수라는 신분만을 생각해서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 그대로 적용하면 도행역시(倒行逆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행동구분

행동구분은 신분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구분도 포함된다. 자녀들의 행동을 제재할 때 종종 제기되는 문제는 누구(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내 친구 등등)는 할 수 있는데 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는가이다. 어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허용되는 것은 행동의 내용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행동이라도 신분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구분은 신분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동의 또는 실천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가도 되는 장소인지 가면 안 되는 곳인지,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즐겨도 되는 문화인지 피해야 할 문화인지, 바른 문화인지 퇴폐적인 문화인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기쁨인지 쾌락인지, 가져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식사시간인지 TV시청시간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말 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인지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닥친 고통인지, 함께 쓰는 물건인지 개인의 것인지, 공공장소인지 사적인 장소인지, 돈을 써야 할 때인지 쓰면 안 되는 때인지, 청소년문화인지 성인문화인지 등.

성인에게는 허락된 장소라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장소가 있다. 성인에게는 허락된 물건이라도 자녀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 사적인 장소에서는 허락된 행동이라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부모님은 해도 되는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옆집에서는 허용되지만 우리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 자녀간의 갈등은 신분구분에 의한 행동구분이 되지 않는대서 온다해도 과언이 아니다.<sup>5)</sup> 신분구분에 의한 행동구분이 가능하다면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문화구분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사상이나 이념, 전통, 관습 등 정신문화에서부터 책, 영화, 연극, 드라마, 광고, 음악, 미술, 건축 등 물질문화가 우리 삶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 속에서 살며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하며 살아가지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화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하여 정신적, 심적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문화에 노출이 되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신과 생활방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문화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특히 자녀들이 직접 접하는 물질문화 혹은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힘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썩게 하는 책이 있다. 짧은 동영상도 영화도 드라마도 연극도 음악도 미술도 놀이문화도 모두 동일하다. 스마트폰으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왜곡된 성문화는 거의 중독으로 이어지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탈선하게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절반 이상이 야동에 중독되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비하면 큰 일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나이 또래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성범죄일 수 있다.

문화구분의 기준은 순전한 기쁨인지 잘못된 쾌락인지이며, 순전한 기쁨이나 잘못된 쾌락이나의 기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 2. 순종

“이스라엘아 들으라(신명기 6:4).”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들으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며, 지식 축적을 위해 들으라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 어머니 말 좀 들어!”, “너는 왜 어머니 말을 듣지 않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들으라’는 ‘순종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순종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 동의가 되면 행동하고 동의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후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명령에 이성적 판단이 동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순종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단이라기보다 이성적 판단보다 앞서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sup>6)</sup> 개혁주의자들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던 대소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등도 순종의 방법을 취한

5) 부모 자녀 관계 뿐 아니라 모든 관계도 동일하다 하겠다.

다. 주어진 질문에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서 주어진 답을 암송하여 대답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을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는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의 역할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진리를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확장시킬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적 교육의 출발은 ‘순종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이 일반교육과 구별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일반교육의 목적은 합리적인 인간형성에 있다. 합리적인 인간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 판단의 근거가 과학과 이성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이성적 판단에 앞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요구한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에 기초할 때 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의 받아들임이 전제되지 않은 이성의 판단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순종교육을 위해서는 ‘순종’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한다. 유교적 삶의 원리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순종’이 연장자인 타자의 요구에 의한 거절할 수 없는 소극적인 행동, 때로는 원치 않으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순종은 감사함에 대한 적극적 반응으로써의 행동이다.<sup>8)</sup> 순종하는 이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 자격없는 인간이 거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근원이 될 때 참된 의미의 순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신분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을 감사함으로 행하려는 의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 행동이 아닌 감사에 의한 적극적 행동’. 부연하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 청소년으로서 자신이 즐기는 문화를 선택하는 것 등을 구분하며 행동하는 것은 자녀로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반응인 것이다. 결국 순종은 부모에게 교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이 가능할 때 ‘순종’이 가능하다. 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상실된다.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감사함으로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 3. 사소한 것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창세기 3:6).”

창세기 3장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는 고작 한개

---

6) 이성적 판단에 앞서 어떠한 가치판단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7)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 특히 윗 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다.

8) 윌터스토폴프는 감사를 위한 교육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복 주시어’가 전제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명령에 대한 반응은 복 주심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소하게 먹은 한 두 개의 열매로 인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한 두개는 사소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것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다. 드러난 현상 또는 그것이 지니는 객관적인 값어치가 사소한 것이냐 엄청난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의미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현상이나 상황의 가치를 결정한다. 비록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사소한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9)</sup>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누가복음 16:10).”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며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누가복음 19:17).”

아마도 여기에 언급된 ‘작은 것’도 외현적으로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의미였을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일평생을 바벨론을 위해 핵심적인 일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에게서도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다니엘 1:8).”

뜻을 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일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여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음식을 먹느냐를 뜻을 정하여 거절할 만큼 거창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주’는 모든 문화의 기본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이 의식주를 형성하고, 또한 의식주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민족은 동일한 의식주를 가지고 있고, 그 의식주가 그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준다.<sup>10)</sup> 따라서 의식주는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거의 평생(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거의 70대 때이다)을 바벨론을 위해 핵심적인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소해 보이나 가장 기본적인 문화부터 거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사소한 부분에서 조차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 바벨론에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다.

자녀의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나쁜 습관, 사소한 잘못 등을 사소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식탁에 올려둔 천원이 없어졌을 때와 십만원이 없어졌을 때 부모는 돈의 값어치를 떠나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 것에 대한 교육은 돈의 액수와 관련이 없다. 사소한 규칙을 어겼을 때와 중요한 규칙을 어겼을 때에도 그것을 다루는 내용과 방법은 동일해야 한다.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의 행동이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문화구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나이에서 행할

9) 사소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면에도 모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소한 것의 두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있다. ‘티끌모아 태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10) 이슬람은 그들만의 의식주를 철저히 지킨다. 히잡, 할랄식품, 그리고 도시나 건물을 건축할 때 알라의 가호가 느껴지도록 건축한다. 본 연구자는 철저한 이슬람식 의식주가 이슬람 결집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



수 있는 큰 잘못 일 수 있다.

자녀교육에서 중요하나 자주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소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부모의 양육 태도이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사소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중요한 약속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소한 일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적은 돈도 관리하지 못하면 큰 돈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는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 4. 징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창세기 3:23).”

본 연구자는 자녀교육에 있어 징계의 원리를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원리에는 용서와 책임의 분리, 성실함, 그리고 뉘우침과 결단이 포함된다.

##### (1)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징계의 원리, 즉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원리는 용서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용서받았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피흘림의 제사<sup>11)</sup>를 감행하시면서 까지 말이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을 없었던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패널티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전에 누리던 모든 완벽함과 영원히 사는 것과 동일시 되지 않았다. 용서 받았다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땀을 흘려야 했으며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 받았기에 이전에 누리던 것,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

부모는 자녀의 어떠한 잘못이나 불순종도 용서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자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녀의 불순종 또는 잘못에 책임질 기회를 주지 않는 용서는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따라서 바른 징계를 위해서는 용서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예컨대, 일주일 교통비로 받은 돈을 여타 다른 것에 사용했을 경우, 그런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일주일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교통비를 받을때까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

11) 불순종한 인간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였어야 했을 것이다.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는 죄를 속하는 최초의 제사였을 것이다. 피흘림의 제사로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의 그림자였을 것이다.

## (2) 성실한 징계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할 때조차 성실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징계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랑하는 인간의 불순종과 이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되어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고생하는 인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고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성실한 징계를 하신다. 그렇다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징계의 상황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대안을 주신다. 옛 것을 다시 누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해 주시는 것이다.

성실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는 자이고, 징계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성가시기 때문에 성실한 징계를 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자는 성실한 징계에 실패하는 이유를 부모의 이기심 때문이라 표현한다. 이기적인 자녀 사랑, 자녀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반응, 자신의 분주함, 자신의 필요충족 등 때문에 성실한 징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3)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는 징계

징계에서 또 다른 원리는 징계 받는 자녀에게 그러한 행동이 심각한 불순종이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뉘우침과 결단’을 이끌어 내듯이 자녀교육에 있어 징계 또한 ‘뉘우침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 근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간의 반복되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징계 때문일지도 모른다. 폭력을 가한 학생이 교내 봉사 또는 청소 정도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을까? 그러한 징계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나올만한 징계라 할 수 있는가?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라면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가든 어디에서든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될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에라도 적절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 사소한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으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소한 것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징계로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 IV. 결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학습자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는 학습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르치는 부모이다. 자녀를 교육할 때에 기독교적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기독교적 원리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적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원리가 삶에 내재 되어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 가능하다 하겠다. 흔히 모델링의 원리라고 하지만,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상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모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된 자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실천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충성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적절한 징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은 실천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토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성실한 징계, 뉘우침과 결단이 있는 징계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주어진 교육적 소명은 자녀가 이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